

한일 수교 50년, 대일 무역 평가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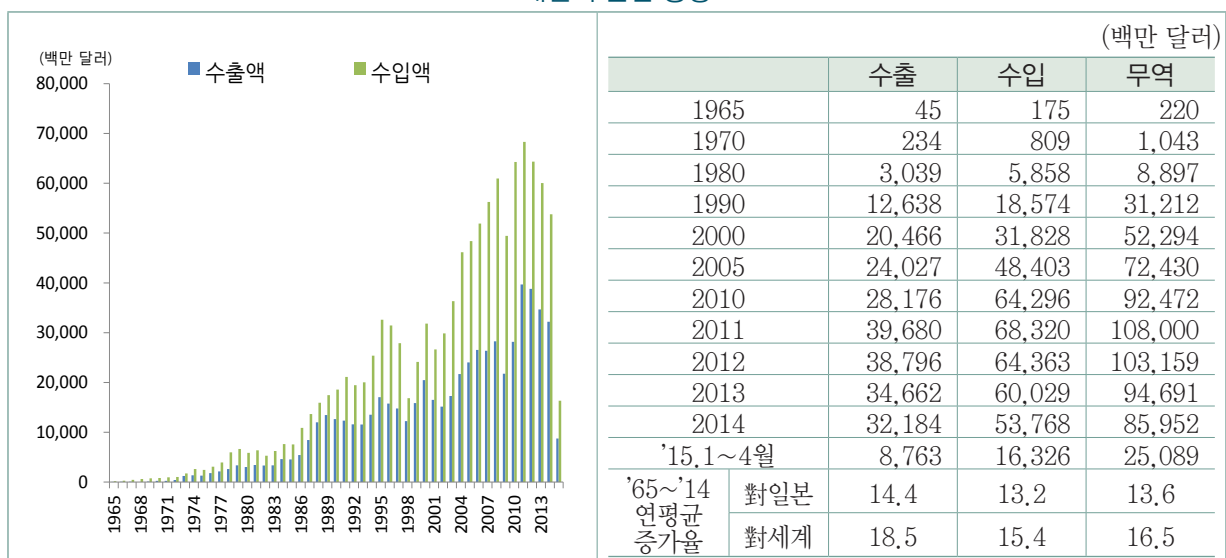
1965년 한일 수교 이래 양국간 무역은 연평균 13.6% 성장했으나 우리나라 전체 무역 신장률(16.5%)에 비해 미흡한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국 순위에서도 일본의 위상은 1965년 2위에서 2014년 3위에 이어 금년 5위로 하락했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대일 무역수지 적자 기조는 최근 들어 완화됐다. 수출은 1차산품, 경공업제품 위주에서 최근 IT제품, 중화학공업제품, 문화콘텐츠 등으로 탈바꿈했고 수입의 경우 우리 기술력 향상과 수입선 전환으로 고기술품목 및 소재·부품의 대일 수입이 둔화되었다. 2011년을 정점으로 대일 수출, 수입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양국간 무역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I

한·일 무역 동향

- 한·일 간 무역규모는 1965년 2.2억 달러에서 2014년 860억 달러로 연평균 13.6% 확대
- 수교 이후 전반적으로 확대된 양국간 무역규모는 2011년 1,080억 달러를 정점으로 최근에는 감소세
- 1965~2014년 동안 對일본 수출액은 720배, 수입액은 300배 이상 증가했으나 우리나라의 對일본 수출입 증가율은 대세계보다 낮은 수준
- * 1965~2014년 연평균 증가율(%) : (대일본) 수출 14.4, 수입 13.2, 무역 13.6
(대세계) 수출 18.5, 수입 15.4, 무역 16.5

대일 수출입 동향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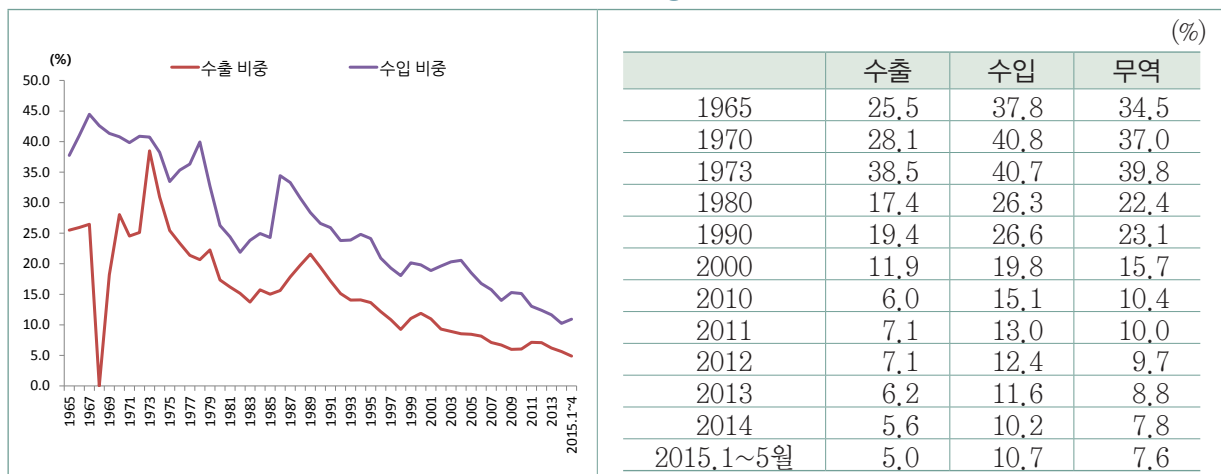
우리 무역에서 일본의 위상

□ 1965년 한일 무역협정 체결 이후 전체 무역 중 일본 수출입 비중이 1973년에는 40%까지 상승했으나 1991~2011년 일본의 장기불황, 2012년 이후 아베노믹스 등의 영향으로 하락 추세

○ 대일본 무역 의존도는 1965년 34.5%에서 2015년 1~5월에 7.6%로 1/5 수준으로 하락

* 대일 비중 변화('65→'15.1~5, %) : (수출) 25.5 → 5.0 (수입) 37.8 → 10.7 (무역) 34.5 → 7.6

대일 수출입 비중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무역 대비 비중

□ 일본은 1965년 우리나라 2대 무역상대국에서 최근에는 3위로 한 단계 하락

○ 수출의 경우 1965년 2위에서 2014년 3위로 한 단계 하락했고 2015년 들어 홍콩과 베트남이 3~4위로 부상하면서 5위로 하락

* 우리나라 국별 수출 증감률('15.1~5월, 전년동기비%): (세계) -5.7 (홍콩) 9.2 (베트남) 24.3 (일본) -18.5

○ 수입의 경우 1965년과 2014년, 2015년 1~5월 동안 일본은 2위의 수입상대국을 유지

우리 무역에서 일본의 위상 변화

(백만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무역			
	1965		2014		1965		2014		1965		2014	
1	미국	62 (35.2)	중국	145,288 (25.4)	미국	182 (39.3)	중국	90,082 (17.1)	미국	244 (38.2)	중국	235,370 (21.4)
2	일본	45 (25.5)	미국	70,285 (12.3)	일본	175 (37.8)	일본	53,768 (10.2)	일본	220 (34.5)	미국	115,568 (10.5)
3	홍콩	11 (6.2)	일본	32,184 (5.6)	독일	16 (3.5)	미국	45,283 (8.6)	독일	20 (3.1)	일본	85,952 (7.8)
4	스웨덴	5 (3.1)	홍콩	27,256 (4.8)	필리핀	11 (2.4)	사우디	36,695 (7.0)	홍콩	19 (3.0)	사우디	44,983 (4.1)
5	태국	4 (2.5)	싱가포르	23,750 (4.1)	대만	10 (2.2)	카타르	25,723 (4.9)	네덜란드	8 (1.3)	싱가포르	35,053 (3.2)
	총계	175	총계	572,665	총계	463	총계	525,515	총계	638	총계	1,098,180

주 : ()는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III

대일 무역수지 동향

□ 대일 무역적자는 1965년 1억 달러에서 지속 확대되며 2010년 361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 기록. 이후 적자폭이 축소되며 2014년 216억 달러를 기록

○ 일본은 지난 수십 년 간 우리의 최대 무역적자국이었으나 최근 원유 수입 비중이 높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에 이어 3위에 랭크

*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수지 적자국(2014년): (1위) 사우디아라비아 (2위) 카타르 (3위) 일본

○ 품목별로는 과거 대일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던 무선통신기기(-0.6억→13.7억), 자동차부품(-5.4억→0.2억) 등은 흑자로 반전된 가운데 합성수지(-2.7억→-1.3억) 등은 적자폭이 완화

- 반면 반도체, 철강판, 광학기기 등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무역 적자폭 확대

* 대일 흑자 전환 품목('88→'14, 억달러) : (무선통신) -0.6 → 13.7

(자동차부품) -5.4 → 0.2

* 대일 적자 축소 품목('88→'14, 억달러) : (합성수지) -2.7 →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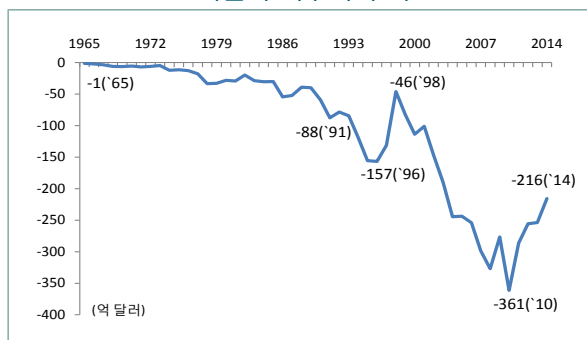
* 대일 적자 확대 품목('88→'14, 억달러) : (반도체) -8.7 → -24.0

(철강판) -0.1 → -12.3

(기초유분) -1.4 → -23.8

(광학기기) -1.9 → -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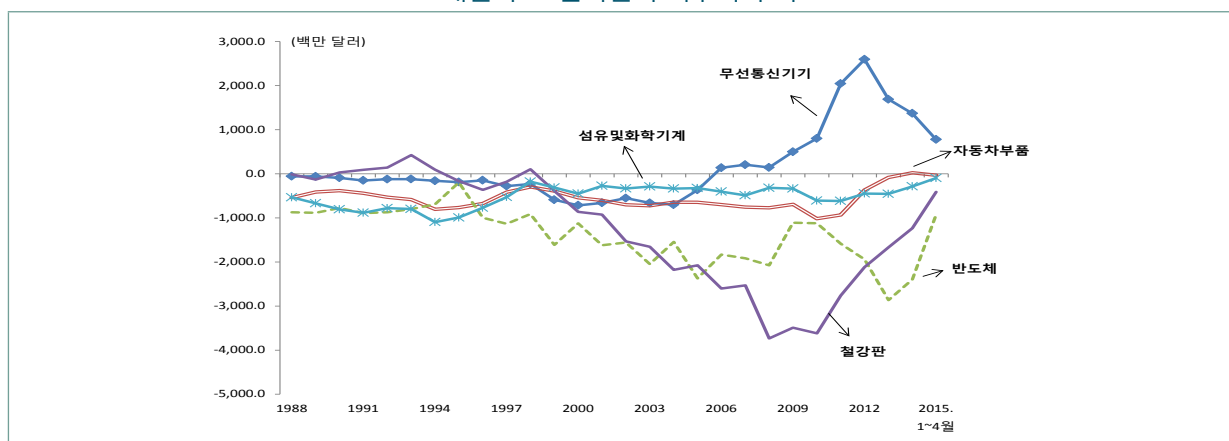
대일 무역수지 추이



대일 적자 완화 품목('88년→'14년)



대일 주요 품목별 무역수지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IV

대일 수출입 품목 동향

1

주력 수출 품목 변화

□ 과거 대일 수출은 1차산품, 경공업 제품의 비중이 컸으나 최근에는 IT제품을 비롯한 중화학공업 제품이 대일 수출을 주도

* 대일 산업별 수출비중('88→'14,%): (1차산품) 19.1→10.2 (경공업) 39.1→7.9 (중화학) 41.8→82.0

시기별 대일 주요 수출품목

1971~1980	1981~1990	1991~2000	2001~2011	2012~2014
식료품, 생사, 철광석, 텅스텐 등 원료	철강제품, 반도체, 의류, 신발, 조개, 어류, 참치, 수산물가공품	반도체, 철강제품 석유제품, 의류, 칼라TV, 금, 컴퓨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제품, 철강제품, 전자응용기기, 기초유분	석유제품,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은, 합성수지, 정밀화학원료

□ 1988-2014년 기간 중 대일 수출 품목 중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등의 수출액이 각각 144배, 25배 증가

○ 무선통신기기의 경우 1988년 對일본 수출이 1,40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 20.1억 달러로 증가하면서 대일 수출 3위 품목으로 부상

우리나라의 對일본 수출품목 변화

(백만 달러, 배)

품 목	1988년		→ 증감 배수	2014년	
	순위	수출액		수출액	순위
석유제품	6	428	15.1	6,462	1
철강판	2	1,102	1.9	2,126	2
무선통신기기	90	14	143.6	2,011	3
반도체	3	503	3.8	1,888	4
금은빛백금	52	40	23.9	955	5
자동차부품	57	35	25.3	884	6
플라스틱 제품	20	129	6.3	817	7
합성수지	36	63	12.8	807	8
정밀화학원료	40	61	12.5	760	9
주단조품	42	57	9.4	534	10
의류	1	2,552	0.2	423	16
어류	4	501	0.4	211	34
연체동물	7	354	0.4	132	52
영상기기	9	285	0.4	117	59
신발	5	454	0.2	83	69
음향기기	8	308	0.2	50	88
기타비금속광물	10	249	0.1	24	110
전 품목		12,004	2.7	32,184	

주: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2

문화콘텐츠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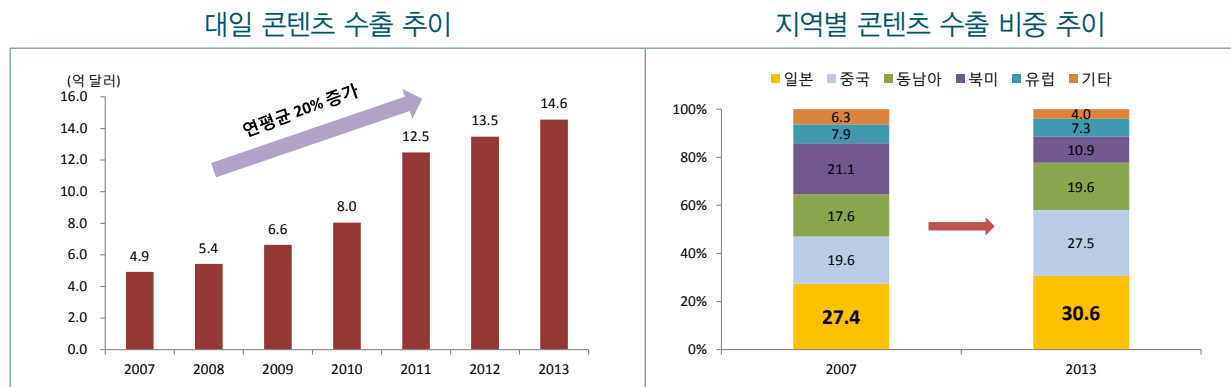
□ 최근 들어 대일 상품 수출 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 수출도 두각

○ 2000년대 일본내 한류 붐 확산 영향으로 대일 문화콘텐츠 수출이 2007년 4.9억 달러에서 2013년 14.6억 달러로 연평균 20.0% 증가

–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문화콘텐츠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27.4%에서 2013년 30.6%로 3.2%p 상승

○ 최근 들어 엔저 및 한·일 관계 악화 영향으로 대일 문화콘텐츠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모습이나 꾸준한 성장세는 유지

* 대일 콘텐츠 수출증가율(%): ('07)43.1→('08)10.2→('09)22.4→('10)21.1→('11)55.2→('12)8.0→('13)8.0



주 : 방송(해외교포방송지원, 비디오/DVD 판매 등), 광고산업 수출액 제외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 한류 열풍으로 일본내 한국 브랜드 선호가 확산되며 문화콘텐츠 뿐만 아니라 문화상품 수출 및 일본 관광객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남

○ 한국 드라마 및 K-POP 열풍으로 음식료, 패션-뷰티, 생활용품 등 일본으로의 한류 관련 소비재 수출 증가

* 대일 한류상품 수출 연평균 증감률('07~'14, %)¹⁾: (음식료) 17.0 (패션뷰티) 16.5 (생활용품) 17.4

○ 2014년 중 한국 방문 일본 관광객은 2003년 대비 25.8% 증가하며 국가이미지 개선에도 도움

* 한국 방문 일본 관광객 수(천 명): ('03) 1,725 → ('14) 2,173

1) 김광석(2015), 한류기반 소비재의 수출 현황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3 주력 수입 품목 변화

□ 주요 대일 수입 품목 중 컴퓨터, 음향기기 등 전자제품 수입이 큰 폭 감소

○ 화학제품, 기계류, 반도체제조용장비, 플라스틱제품 등 수입은 증가

우리나라의 對일본 수입품목 변화

(백만 달러, 배)

품 목	1988년		→ 증감 배수	2014년	
	순위	수입액		수입액	순위
반도체	1	503	3.1	4,286	1
철강판	2	1,102	3.0	3,360	2
플라스틱 제품	199	25	14.3	2,838	3
기초유분	163	30	16.3	2,658	4
반도체제조용장비	7	119	297.1	2,080	5
광학기기	203	23	8.9	1,815	6
합금철선철및고철	47	64	35.4	1,664	7
기타화학공업제품	200	24	7.4	1,477	8
정밀화학원료	330	14	4.0	1,336	9
석유제품	81	49	15.8	1,282	10
원동기및펌프	7	13	2.5	1,268	11
계측제어분석기	9	17	2.6	1,190	13
기계요소	10	26	2.1	949	18
자동차부품	4	35	1.5	862	20
기타기계류	8	12	1.5	747	24
컴퓨터	3	122	0.6	424	39
섬유및화학기계	6	26	0.7	375	41
음향기기	5	308	0.1	38	92
전 품목		15,929	3.4	53,768	

주 : MTI 3단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 ICT 산업의 기술 수준 및 경쟁력 향상으로 고기술산업의 대일 수입 비중이 이전 대비 축소

－ 대일 수입 중 고기술산업 수입 비중은 1965년 28.2%에서 2014년 15.3%로 12.9%p 하락

기술수준별 대일 수입 추이

(비중, %, %p)

산업분류	1988(a)	2000	2014(b)	비중차(b-a)
총 계	100.0	100.0	100.0	－
고기술산업	28.2	32.3	15.3	－12.9
중고위기술산업	45.3	43.4	46.8	1.5
중저위기술산업	18.6	18.5	30.8	12.2
저위기술산업	5.1	2.6	1.6	－3.5

주 : OECD 기술수준별 품목 분류 참조

자료 : UN Comtrade, 한국무역협회

4

소재·부품 수입

□ 우리나라의 소재·부품 수입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4년 34.9%에서 지난해 18.1%로 16.7%p 하락

○ 소재·부품 수입 중 부품 수입액의 비중이 크게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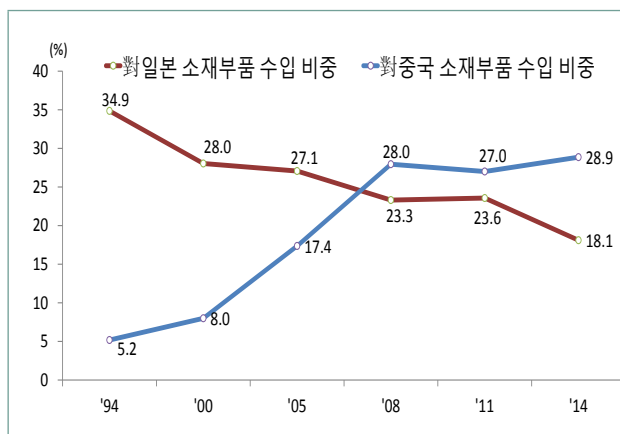
* 소재·부품 수입 중 대일본 비중 하락폭('94-'14년,%p): (소재·부품) 16.7 (부품) 12.6 (소재) 4.2

○ 반면 對중국 소재·부품 수입 비중은 동 기간 5.2%에서 28.9%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소재·부품 수입 1위국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변화

* 1994~2014년 연평균 소재·부품 수입증감률(%): (대세계) 17.4 (대중국) 39.3 (대일본) 9.9

* 국가별 소재부품 수입금액(억달러): ('94년)일본 118 미국 77 독일 23 ('14년) 중국 485 일본 305 미국 188

對일본 및 對중국 소재·부품 수입 비중



對일본·중국 소재부품 수입 증가 비교

(백만 달러, %)			
	1994	2014	연평균 증가율
對일본	11,834	30,457	9.9
對중국	1,760	48,547	39.3
對세계	33,950	168,160	17.4

자료: 한국무역협회, 기계산업진흥회

V

결론 및 시사점

□ 한일 수교 이후 양국간 무역은 전반적으로 확대됐으나 2011년을 정점으로 최근 감소세로 돌아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 대일 수출, 수입이 모두 2011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간 무역액은 2011년 1,080억 달러에서 지난해 860억 달러로 축소

○ 한일간 인적교류에 있어서도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방문객수는 이전 대비 늘어난 반면 비즈니스 목적의 방문객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양국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한국 방문 일본인수 추이

구분	관광		상업		기타		계	
	2003	2014	2003	2014	2003	2014	2003	2014
방문객수(천명)	1,726	2,173	39	28	37	79	1,802	2,280

자료 : 한국관광공사

□ 최근 주일 한국기업 및 일본 바이어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국 관계 악화가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무역협회 동경지부의 주일 한국기업 대상 대일비즈니스 환경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조사시 급격한 엔저로 인한 채산성 악화가 가장 큰 문제였으나 2014년 이후부터 한일관계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주일 한국기업 비즈니스 애로(응답율%)

[엔저 영향 채산성 악화] ('13년) 73 → ('14년) 61 → ('15년) 57

[한·일간 정치관계 악화] ('14년) 28 → ('15년) 30

- 금년 4월 일본 바이어 26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한일관계 악화로 한국과의 거래가 감소했다는 응답이 46.7%에 달해 양국관계 악화가 실제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한일관계가 개선된다면 한국과의 거래를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64%에 달해 양국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양국간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관계개선을 위한 민간 및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

- 한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간 새로운 가치사슬의 모델 창출, 한일 FTA 체결, 제3시장 공동진출, 신성장 분야 협력 확대 등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음

– 서로를 경쟁상대로만 인식하는 한계에서 벗어나 과거의 수직적 협력을 수평적 협력으로, 산업간 분업을 산업내 분업과 특화로 확대·심화시켜 나아감으로써 가치창출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2004.11월 이후 중단되고 있는 한일 FTA 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한편 아세안, 중국을 포함한 제3시장으로의 공동 진출, 모바일, 헬스케어, 로봇, 항공우주 등 양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미래산업과 신성장 분야 협력 강화 등 추진 필요

- 한일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교류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 정부 차원에서도 관계 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됨

* 한일경제인회의 개최(5월), 한일교류축제(9월), 한일교류대전개최(10월), 한일경제인 우호 교류의 밤 개최(10월) 등

문의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 수석연구원 오세환 (02-6000-5184, sehwan@kita.net)
수석연구원 문병기 (02-6000-5185, bkmun@kita.net)
연구원 박 솔 (02-6000-5153, mysoul@kita.net)
연구원 심혜정 (02-6000-5159, hshim@kita.net)